



김지연

✉ aa40254037@gmail.com

☎ +82 1040254037 | 📅 1994년생

개발 직무

웹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개발자

기술 스택

HTML5

CSS 3

Sass

Node.js

Figma

JavaScript

React

Next.js

Vue.js

GitHub

Postman

REST API

TypeScript

학력

○ 2016.02 졸업

대학교(4년) |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경력(업무경험)

개발경력 0년 0개월 (총 경력 6년 4개월)

○ 2016.08 - 2018.05

1년 10개월

인휴

비개발

실내 디스플레이팀

SketchUp

Autocad

○ 2019.01 - 2023.06

4년 6개월

kdfarm

비개발

디자인팀

Adobe Illustrator

Adobe Photoshop

프로젝트

○ 2024.03 - 진행중

김지연 - 포트폴리오

React

Sass

ExpressJS

Figma

저장소 링크

· <https://kimzjyeon-portfolio.vercel.app/>

○ 2024.02 - 2024.03

초보들의 코딩 [초딩]

누구나 쉽고 편하게 코딩 공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

Next.js

TypeScript

Sass

axios

Zustand

Figma

누구나 쉽고 편하게 코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수준에 맞춰 강의를 추천, 검색을 제공하고 코더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저장소 링크

· <https://choding.vercel.app/>

○ 2023.12 - 2024.01

서울, 마이소울

대한민국을 서울 홍보 웹페이지

HTML5

Sass

JavaScript

Figma

서울시 홍보를 바탕으로 젊은 층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들을 덜어내고 '서울' 자체에 집중 개선하여 Pc, Mobile 반응형 웹페이지 입니다.

저장소 링크

· https://dragon1431.github.io/teamA_hit/

교육이력

○ 2023.11 - 2024.04

KDT 프로젝트기반 프론트엔드(React,Vue) 웹&앱 SW개발자 양성과정

그린컴퓨터아카데미(강남)

HTML5

CSS 3

Sass

JavaScript

React

Next.js

Vue.js

Figma

GitHub

MongoDB

Node.js

자기소개서

○ 빵긔, 성장의 한 발짝 더

- 성장과정 / 성격 장점 및 단점

'빵'이라는 별명을 가진 저는 얼굴만큼 둥글둥글한 마음을 가진 셋째 딸입니다.

인생의 첫 사회생활인 가족들과 첫째, 막내도 아닌 중심인 셋째로 살아오면서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둥근 마음을 가졌지만 신념이 뚜렷하며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작지만 꾸준함을 목표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상호 활동으로 힘을 얻는 외향적인 저는 협업, 팀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원칙과 질서를 중시하지만 주어진 업무 환경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상대방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강점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큰 성과와 목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타인과의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저의 필요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제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말하기 전, 발표 전에는 꼭 제 생각을 정리하며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며 성숙한 나, 자기 계발에 힘 쓰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 자연은 없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 교육활동(경력 / 경험)

산업디자인을 졸업해 전공따라 공간디자인을 하다가 제 적성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었고 다른 디자인을 해야 할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디자인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막연하게 첫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좋은 기회로 개발 프로젝트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편 업무 서비스에 필요한 고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기획, 개발, 구현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로서 설계 구현에 관한 프로세스 개념이 부족하여 핸드오프에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팀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디자인이어도 UX, UI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필요한 버튼이 되고, 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편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정형화 된 디자이너가 되어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디자인과 개발 중간다리 역할인 퍼블리셔의 자리는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를 한 발 더 앞으로 내딛게 해주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의 학원 교육과정을 받는 동안 영문 타자, 언어 사용법 등 익숙해지지 않는 코드 속에서 헤엄치기 위해 하루 30분 영문 타자 연습, 지하철에서 코딩 강의를 들으며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기획 개발하였고, 팀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드백을 기반으로 UX, UI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과의 협업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고,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었기에 더 깊고 멋진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 약속 된 코드와 감각적인 센스

-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대화와 말 속에는 같은 말이어도 어떤 의미나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코드 자체로도 대화가 가능하고 문제를 제시, 해결해 나갑니다.

서로 약속 된 코드에 감각적인 저의 센스 한 스펀을 담아 사용하기 쉬운 UI, 기억에 남는 UX를 개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 승화시키는 것이 저의 가치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원칙과 기능적인 편의, 나아가 회사의 브랜딩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단지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 지식 활용만으로는 실무에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진 기회에 꾸준히 목표에 도달, 더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과 기술을 활용해 보며 저는 제 직무 경험의 강점을 바탕으로 또 한 발짝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링크

Github <https://github.com/kimziyeon>

Velog <https://velog.io/@aa40254037>

포트폴리오 <https://kimziyeon-portfolio.vercel.app/>
